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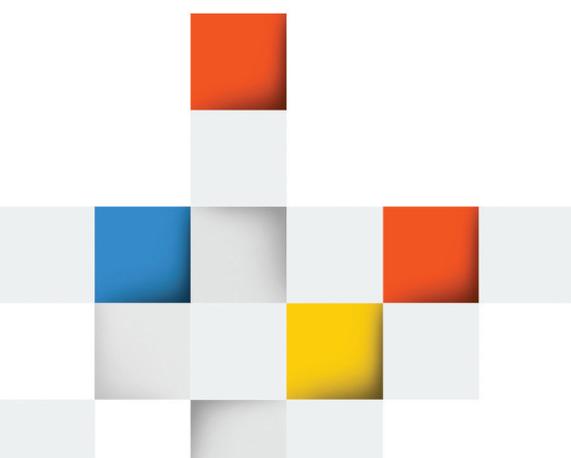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1 **2021**  
<http://sri.kostat.go.kr>



통계청  
통계개발원

# 코로나19 이후 가계소비 동향

이윤수 (서강대학교)

-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된 1분기에 전반적인 소비 지출은 감소하였다. 거리두기와 외출의 감소로 식사비 지출은 감소한 반면 가정 내에서의 식료품 지출은 증가하였다.
- 2분기에 내구재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소득층의 자동차 소비 지출액이 증가하였다.
- 컴퓨터, 가구, 의료용 소모품(마스크)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반면, 단체여행, 오락 및 문화 서비스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캠핑 등 여가에 대한 대체수요와 주류소비는 증가하였다.
-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지출은 맞벌이 가구에서는 증가한 반면, 그 외의 가구에서는 소폭 감소하였다.
- 고대면업종인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종사 가구의 경우 취약계층인 1분위 가구의 소비는 증가하였으나 소득보다 소비 증가폭이 커서 가계수지는 악화되었다.
- 고대면업종의 상용직 종사자와 임시일용직 종사자의 소비는 감소하였다.
- 식료품과 인테리어 등 내구재 소비의 증가는 미국 등 해외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이다.

2019년 말에 발생하여 2020년에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각 국가는 기존의 바이러스 질환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은 전염성을 가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외출 제한

과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전면적인 봉쇄까지 일부 지역 혹은 전국 단위에서 시행된 정책들은 일상생활과 소비 행태에 큰 파장을 가져왔다. 특히, 사람들의 접촉을 제한함에 따라 일상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이나 식당, 대면 접촉의 강도가 높은 헬스클럽, 개인 서비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정책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소비활동 감소로 인해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감소와 실업 등에 의한 소득 감소와 불확실성의 증가는 전세계 경제를 대공황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상태로 내몰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염병 확산 초반의 성공적인 방역정책으로 미국이나 유럽국가에 비해 전염병의 확산이 경제 전체의 봉쇄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거리두기정책 등으로 인해 소비와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감소를 피하지 못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은 음식숙박업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한편 등교의 제한과 재택근무의 증가로 대면 접촉이 감소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을 통한 비대면 소비의 증가라는 새로운 소비행태의 확산을 가지고 왔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경험했던 2020년 가구의 소비 형태의 특징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분기별 소비변화와 전반적인 특징

민간소비는 2020년 1분기에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급속히 위축되었다. 2분기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정책에 힘입어 다소 회복하였다. 그러나 3분기 중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되며 회복이 지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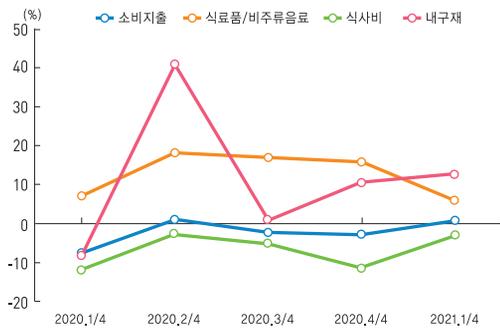
[그림 VI-31]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비농업 가구의 분기별 소비지출의 변화를 보여준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전반적인 소비지출의 감소를 가져왔다. 대구의 확진자 증가로 거리두기 정책이 처음 시행되었던 2020년 1분기의 경우 가구당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하였으나 확진자가 감소하기 시작한 2분기에 회복하여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 후 재유행으로 상황이 악화되었던 3분기와 4분기의 평균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2~3% 정도 감소하였다.

거리두기 정책과 재택근무의 증가, 자발적인 외출 자제 등은 외식의 감소로 이어졌다. 2020년 가구당 식소비 지출은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였다. 한편 자연스럽게 식구들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의 급식이 가정 내 식사로 대체되면서, 가구의 식료품 소비지출은 자연스럽게 늘어

났다. 비주류 음료를 포함하는 식료품 소비는 1분기에 7% 상승하였고, 이후 2~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5~18%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코로나19를 겪었던 2020년 가구소비의 특징 중의 하나는 내구재의 증가이다. 1분기 10% 가까이 감소했던 내구재 지출은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VI-31] 가구의 소비지출항목별 전년 동기 대비 지출액 증감률, 2020.1/4 - 20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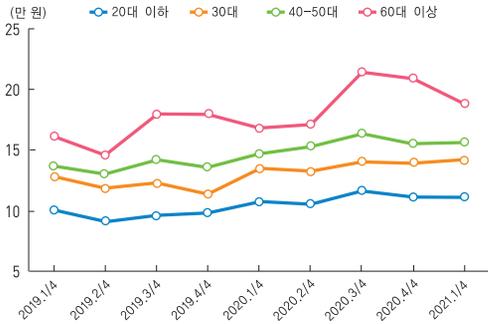


주: 1) 가구주의 종사산업 코드가 농업인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2) 지출액은 소비자물가 총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한 금액을 사용함.  
 3) 내구재는 가계동향조사 소분류 품목 기준으로 가구 및 조명, 가전 및 가정용기기, 자동차구입, 통신통화, 오락문화내구재, 영상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정보처리장치, 악기기구, 장난감 및 취미용품,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1/4-2021.1/4.

###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품목별 소비변화

[그림 VI-32]는 2020년에 증가한 식료품 지출을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본다. 2019년 조사대상자보다 가구원 수가 변화했을 가능성을 고려, 가구원 1인당 지출액을 계산하였다. 식료품비 지출은 2020년 1/4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림 VI-32]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원 1인당 식료품비 지출액, 2019. 1/4 - 2021. 1/4



주: 1) 식료품·비주류음료 항목의 가구당 소비 지출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계산함.  
 2) 지출액은 소비자물가 총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한 금액을 사용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1/4-2021.1/4.

특히 60대 이상 가구에서 높이 증가하여, 2019년 1인당 월 15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로 식료품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2분기에 급증한 내구재 소비는, 일반적으로 내구재 소비는 감소하고 식료품과 같은 필수재 성격의 재화를 포함하는 비내구재 소비 비중이 증가하였던 이전의 경제 위기와는 다른 양상이다(유경원, 2020).

내구재 소비변화가 가구별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그림 VI-33]은 가구주의 연령대별 내구재 소비변화를 살펴본다. 내구재 소비를 「가계동향조사」의 품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구주의 나이가 40-50대와 60대 이상인 가구에서 증가한 자동차 소비가 내구재 소비 증가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또한 재택근무의 확산과 온라인 수업으로 정규 수업이 대체됨에 따라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의

소비지출이 증가하였다. 정보처리장치의 소비지출 증가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림 VI-33] 가구주 연령대별 내구재 지출액, 2019-2020



주: 1) 각 항목은 「가계동향조사」 소분류 기준으로 다음을 포함함.  
 - 가구 및 가전: 가구 및 조명, 가전 및 가정용기기, 영상음향기기  
 - 자동차구입: 자동차구입  
 - 통신장비: 통신장비  
 - 오락내구재: 오락문화내구재, 사진광학장비, 악기기구, 장난감 및 취미용품,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 정보처리장치: 정보처리장치  
 2) 지출액은 명목 금액을 사용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 2020.

내구재 소비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본 [그림 VI-34]는 내구재 소비가 모든 소득분위에 걸쳐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내구재 소비는 특히 5분위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2~4분위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다. 5분위에서 증가한 내구재 소비는 대부분 자동차구입의 지출 증가에 의해서 설명된다.

2020년에 증가한 자동차 소비지출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대수의 변화에도 나타난다. 서울의 경우 2020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던 자가용 등록대수는 2분기 0.81%, 3분기 1.13%, 4분기에는 1.26%로 증가하였다. 2020년이

[그림 VI-34] 가구 소득분위별 내구재 지출액, 2019-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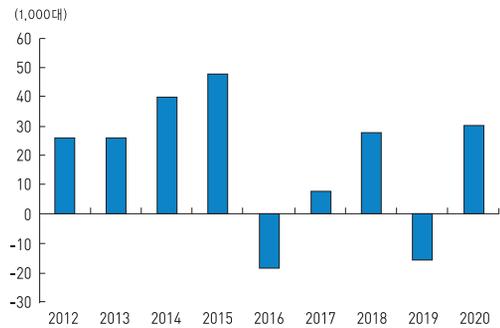
주: 1) 각 항목은 「가계동향조사」 소분류 기준으로 다음을 포함함.  
 - 가구 및 가전: 가구 및 조명, 가전 및 가전용기기, 영상음향기기  
 - 자동차구입: 자동차구입  
 - 통신장비: 통신장비  
 - 오락내구재: 오락문화내구재, 사진광학장비, 악기기구, 장난감 및 취미용품,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 정보처리장치: 정보처리장치  
 2) 소득분위는 총소득 기준인 「가계동향조사」의 소득5분위(전국\_전체 가구\_인미상) 변수 사용.  
 3) 지출액은 명목 금액을 사용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 2020.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와 같은 상대적으로 고가품에 높은 지출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1997년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는 관측되지 않았던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실시된 세금혜택 등에 의한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동향조사」에는 구매한 자동차의 구체적인 특성 등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림 VI-35]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수입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면, 2010년대 초반 꾸준히 증가하였던 수입 자동차 소비는 2015년 이후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 다시 예년 수준의 상승폭을 회복하였다는 점은 2020년 코

로나19 기간 동안 상대적인 고가품의 소비 지출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의 소비지출 증가는 단체 여행을 포함한 해외여행 등 다른 경비의 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축이 늘어난 가구에서의 대체소비를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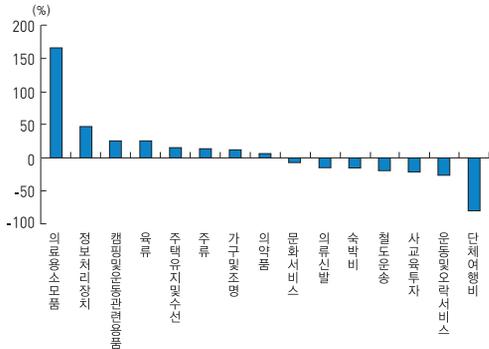
[그림 VI-35] 수입 자동차 등록 대수 전년 대비 순변화량, 2012-2020



주: 1)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서 제공하는 브랜드 통계의 연도별 합계값을 사용.  
 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브랜드 통계」, 2021.7. 조회.

[그림 VI-36]에서 살펴보듯이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0년에는 품목별로 소비지출 변화에 큰 차이가 있었다. 우선 마스크 소비의 급증으로 인해 의료용 소모품에 대한 지출이 급증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컴퓨터 외에도 가구나 주택 수리 등의 지출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뒤에서 살펴보듯이 미국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육류 등 전반적인 식료품 소비 지출은 늘어난 반면 외출의 감소로 의류에 대한 소비 지출은 감소하였다. 아울러, 철도나 단체 여행 등에 사용된 소비 지출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림 VI-36] 소비지출 품목별 전년 대비 지출액 증감률, 2020



주: 1) 각각의 항목은 의류신발을 제외하면 「가계동향조사」 소분류 품목을 그대로 사용함. 의류신발은 「가계동향조사」 대분류 품목의 의류신발임.  
 2) 지출액은 명목 금액을 사용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 2020.

각 품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단체 여행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한 반면, 숙박비는 2~30대를 중심으로 2분기 이후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였다. 또한 캠핑기구 등에 사용되는 소비지출은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즐길거리에 대한 지출이 30-50대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족단위의 소규모 여행으로 패턴이 바뀌고, 차박이나 캠핑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자동차 구매의 증가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헬스클럽 등 운동 및 오락서비스와 공연 등 문화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였는데, 문화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연말에 일부 공연이 재개됨에 따라 4분기에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와 봉쇄기간 중 가장 불편했던 것 중의 하나로 이발 등 미용 서

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해외 뉴스에도 자주 등장했던 내용이다. 비록 비중은 크지 않으나 이 미용 서비스 지출은 감소한 반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용용품에 대한 지출은 증가했다.

### 사교육 지출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등교일수가 줄고 많은 수업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공교육에 의한 교육서비스 시간의 감소와 질적 저하가 사교육에 대한 대체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한 경제의 인적자본 형성과 경제성장에도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공교육의 감소는 가정 내에서의 교육이나 사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사이에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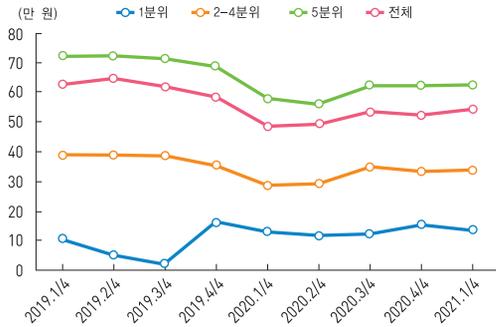
사교육 지출액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본 [그림 VI-37]에서 사교육 지출액은 거리두기로 많은 학원이 문을 닫고 대면 수업에 아이를 보내기 꺼려했던 1분기에 감소하였다. 1분기 사교육 지출의 감소는 소득분위 5분위에 속하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전년 동기대비, 1분기의 사교육 지출액은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였다.

한편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를 이용한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의 감소는 참여학생의 지출 감소보다는 참여율 감



소에 의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사교육비 지출의 감소는 코로나19의 피해가 컸던 권역, 초등 학교 사교육, 예체능 등에서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강다영·정유현, 2021).

[그림 VI-37] 가구 소득분위별 사교육 지출액, 2019.1/4-20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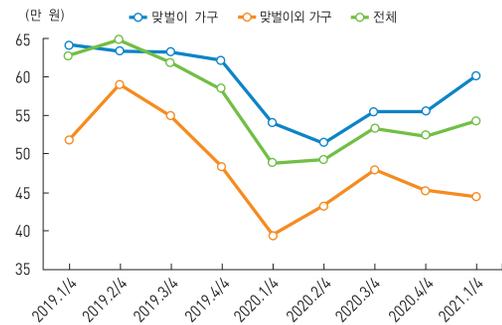


주: 1) 사교육투자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분류 품목인 학생학원교육을 사용함.  
 2)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별로 가구원2부터 가구원5까지 중 가구주와의 관계가 미혼자녀이고 연령대가 만 7세 이상 18세 이하인 가구원을 학업자녀로 정의해 학업자녀수를 직접 파악한 후 학업자녀수가 0인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3) 소득분위는 총소득 기준인 「가계동향조사」의 소득5분위(전국\_전체 가구\_인 이상) 변수 사용.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1/4-2021.1/4.

코로나19로 인한 공교육 서비스의 감소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및 교육 부담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대면 수업에 대한 부담으로 학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반면, 맞벌이 가구는 상대적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아이들의 교육을 외부에 맡겨야 할 필요성에 의해 사교육 지출을 늘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VI-38]에서 맞벌이 가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사

교육 지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20년 2분기 이후 맞벌이 가구가 사교육 지출액 투자를 다른 가구에 비해 더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19년 대비 2020년의 사교육 지출액은 맞벌이 가구 여부와 상관없이 감소하였다. 다만, 맞벌이 가구가 2020년 3분기 이후 꾸준히 사교육 지출액을 늘린 반면, 그 외 가구는 사교육 지출액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38] 맞벌이 여부별 가구 사교육 지출액, 2019.1/4-2021.1/4



주: 1) 사교육투자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분류 품목인 학생학원교육을 사용함.  
 2)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별로 가구원2부터 가구원5까지 중 가구주와의 관계가 미혼자녀이고 연령대가 만 7세 이상 18세 이하인 가구원을 학업자녀로 정의해 학업자녀수를 직접 파악한 후 학업자녀수가 0인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3) 맞벌이가구는 「가계동향조사」의 맞벌이가구 변수를 통해 정의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1/4-2021.1/4.

### 고대면업종 종사 가구의 소비 변화

코로나19의 확산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거리두기와 경제활동의 감소는 음식업과 외식업 종사자의 소득을 감소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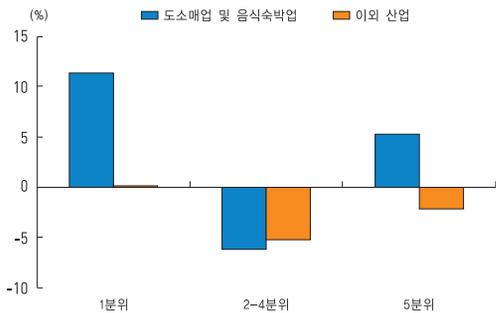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자발적인 외출 자제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대면 밀도가 높은 업종 종사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가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특히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을 대면 업종에 종사하는 가구의 소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본 절에서는 대표적 대면 업종인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종사 가구의 소비 양상을 살펴본다.

[그림 VI-39]에 제시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종사 가구의 소비지출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2~4분위는 소비지출이 감소한 반면, 1분위와 5분위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가구보다

소비가 더 증가하였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을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1분위 도소매업 종사 가구의 소비는 증가한 반면, 1분위 음식숙박업 종사 가구의 소비는 감소해, 같은 대면 업종에서도 소비 양상에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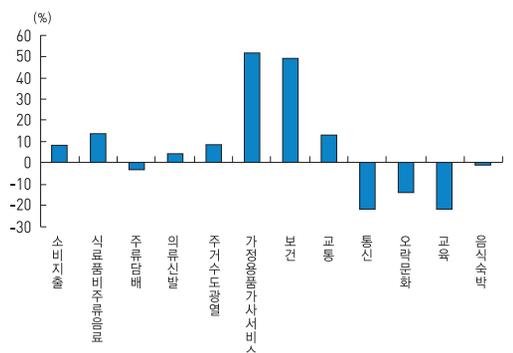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필수재 소비 비중이 높아 소득 감소에 따라 소비를 줄이기는 어렵다. [그림 VI-40]을 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이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품목별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보건,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등의 필수재에서 소비지출이 상당 부분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통, 의류·신발 등과 같이 필수재로 보기 어려운 품목에서도 소비가 상당 부분 늘어났

[그림 VI-39]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종사 가구의 소득분위별 전년 대비 소비지출 증감률, 2020



주: 1) 가구의 종사산업은 가구의 종사산업으로 산정하여 분석 진행.  
 2) 이외 산업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을 제외한 산업임. 보건업과 교육서비스업도 고대면 산업으로 고려.  
 3) 소득분위는 총소득 기준임(「가계동향조사」의 소득 5분위(전국 전체가구\_1인이상) 변수 사용).  
 4) 지출액은 소비자물가 총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한 금액을 사용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 2020.

[그림 VI-40] 소득 1분위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종사 가구의 소비지출 품목별 전년 대비 지출액 증감률,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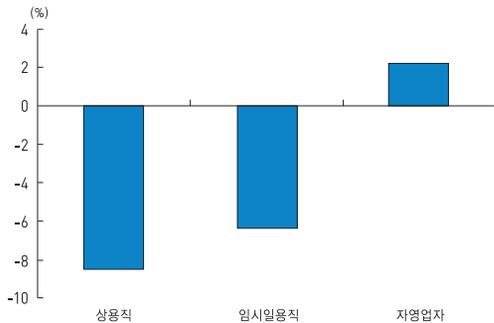


주: 1) 가구의 종사산업은 가구의 종사산업으로 산정하여 분석함.  
 2) 오락문화 대분류 품목에 대한 소비지출이 30만 원을 넘는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3) 지출액은 소비자물가 총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한 금액을 사용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 2020.

다. 이러한 품목의 소비량 자체가 원래 적었기 때문에 늘어난 소비량의 크기 자체는 증가율에 비해 크지 않다. 경제위기 시기인데도 취약계층에서 소비지출이 늘어난 것은 어느 정도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볼 수 있다. 후에 언급하겠지만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은 1분위 가구에서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종사 가구의 종사자 지위별 소비변화를 살펴본 [그림 VI-41]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비지출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소비 변화는 어느 정도 소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증가하였다(그림 VI-42). 비록 분석범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계청의 최근 연구에서도 전체 가구에서 자영업 가구가 근로자가구보다 2020년 2-4분기에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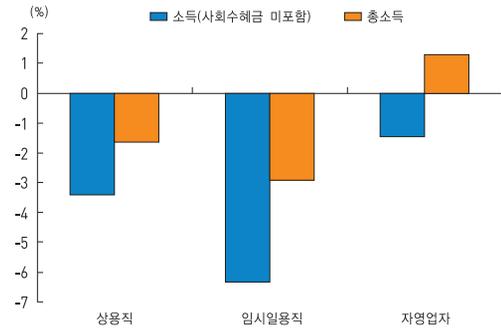
[그림 VI-41]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종사 가구의 종사상 지위별 전년 대비 소비지출액 증감률, 2020



주: 1) 가구의 종사산업이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인 가구를 가구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분류해서 분석함.  
2) 지출액은 소비자물가 총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한 금액을 사용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 2020.

과 소비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향숙·김영희,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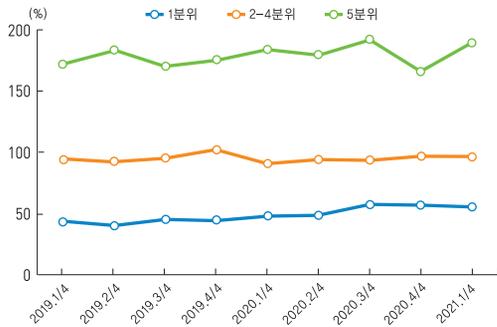
[그림 VI-42]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종사 가구의 종사상 지위별 전년 대비 소득 증감률, 2020



주: 1) 가구의 종사산업이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인 가구를 가구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분류해서 분석함.  
2) 분기별로 해당 소득분위×산업코드 그룹의 평균소득을 구하고 연도별 평균값으로 전년 대비 변화율을 분석함.  
3) 소득액은 소비자물가 총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한 금액을 사용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1/4-2020.4/4.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1분위 가구의 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1분위의 절대 소비액이 작아서 소액의 증가분도 비율로는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VI-43]에 나타나듯이 1분위 가구는 소비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액은 전체 평균의 50% 정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1분위의 소비불평등이 악화되지는 않았으나, 소폭의 소비 증가가 불평등 개선으로도 이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1분위에 속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소득 증가에 비해 소비 지출의 증가가 더 커서 가계수지는 악화되었다.

[그림 VI-43] 소득분위별 전체 가구 대비 도소매업/음식 숙박업 중사가구 소비지출액의 비율, 2019. 1/4-202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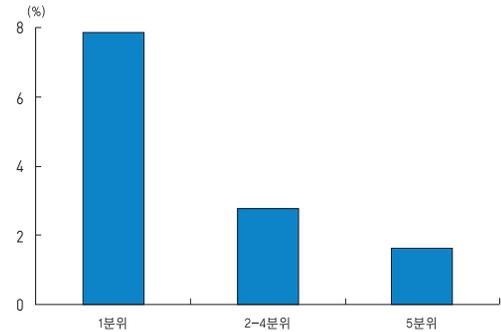
주: 1) 가구원2가 배우자이고 배우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비중이 가구주보다 높은 경우 가구원2의 산업코드를 가구 산업코드로 정의하였고, 다른 경우엔 가구주의 산업코드를 가구의 산업코드로 정의하여 분석함.  
 2) 분위별 평균 소비액을 해당 분기의 전체 평균 소비액으로 나누어 분석함.  
 3) 소득분위는 총소득 기준임(「가계동향조사」의 소득 5분위(전국\_전체가구\_1인이상) 변수 사용).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1/4-2021.1/4.

### 재난지원금의 소득보조효과

소득 1분위에서의 소비 증가는 코로나 이후 제 공된 재난지원금과도 상관있어 보인다. [그림 VI-44]를 보면 2020년 소득 대비 사회수혜금의 증가분이 1분위 가구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분기 이후 재난지원금은 거의 모든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이 있고 5분위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더 높기 때문에 절대적인 증가 액수는 5분위 가구의 사회수혜금 증가분이 더 크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늘어난 소득분은 1분위에서 총소득 대비 8%에 육박하는 반면 5분위에서는 2% 미

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지원금의 체감효과가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사이에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일한 금액의 재난 지원금이라 할지라도 가구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체 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도 1분위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VI-44]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사회수혜금 증가량, 2020



주: 1) 분위별로 분기별 평균 소득과 평균 사회수혜금을 구한 후 이를 연도별로 평균내어 계산함.  
 2) 평균 사회수혜금의 차이를 2020년 평균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1/4-2020.4/4.

### 미국의 소비 변화와의 비교

코로나19의 확산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통계청 등 행정자료 외에 카드 매출액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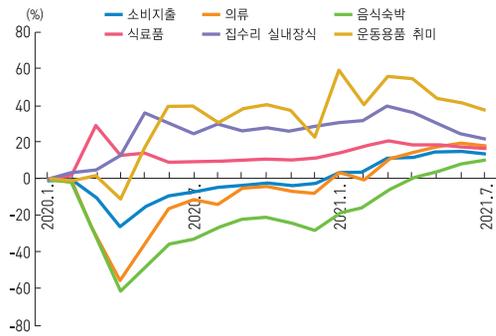
(Chetty et. al., 2020).

[그림 VI-45]는 Chetty et. al. (2020)이 Oppotunity Insight 웹사이트에 공개한 카드지출 자료를 분석하여 코로나19 이후 소비변화를 살펴본 결과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19 이후 전체 소비지출은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 폭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와 음식 숙박은 감소한 반면, 식료품에 대한 지출은 증가하였다. 또한 집수리와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항목(home improvement)도 증가하

였다. 2021년 상반기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의 소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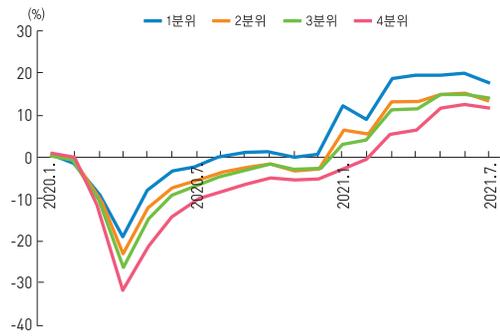
[그림 VI-46]은 소득에 따라 우편번호에 속한 지역을 4분위로 구분하여 지역별 소비변화를 살펴본 그림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4분위 지역의 소비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득이 낮아질수록 소비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필수재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소비를 조절할 여력이 작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VI-45]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주요 품목별 소비지출 변화, 2020.1-2021.7



주: 1) 2020년1월을 기준(0)으로 놓고 추후 소비액의 변화를 보여줌.  
2) 일일 변화량을 월평균하여 제시함.  
출처: <https://www.tracktherecovery.org/>.

[그림 VI-46] 지역소득수준별 소비지출 변화, 2020.1-2021.7



주: 1) 2020년 1월을 기준(0)으로 놓고 추후 소비액의 변화를 보여줌.  
2) 일일 변화량을 월평균하여 제시함.  
3) 우편번호로 구분된 지역을 소득에 따라 4분위로 나눔.  
출처: <https://www.tracktherecovery.org/>.

### 참고문헌

강다영·정유현. 2021. “코로나19가 사교육 참여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여름호.  
안향숙·김영희. 2021. “2020년 자영업가구 및 근로자가구 소득과 소비지출”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여름호.  
유경원. 2020. “과거 경제위기와 코로나19 확산기의 소비지출 패턴 비교” 한국의 사회동향 2020.  
Raj Chetty, John N. Friedman, Nathaniel Hendren, Michael Stepner & The Opportunity Insights Team, 2020. “The Economic Impacts of COVID-19: Evidence from a New Public Database Built Using Private Sector Data” NBER Working Paper Series.